

# 이철하 감독 “‘오케이 마담’ 엄정화, 진심 같아 넣었다”

“영화는 관객들이 즐기는 하나의 동화책이잖아요. 새로운 장을 여는 게 영화감독의 일이죠. ‘오케이 마담’은 새로운 도전이었고,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액션 코미디 영화 ‘오케이 마담’으로 돌아온 이철하 감독은 10일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이번 영화는 저를 비롯한 배우와 스태프들이 모든 것을 갈아 넣은, 진한 진심이 묻어나는 작품”이라고 자신했다.

오는 12일 개봉하는 ‘오케이 마담’은 생애 첫 해외여행에서 난데없이 비행기 납치 사건에 휘말린 부부가 평범했던 과거는 접어두고 숨겨왔던 내공으로 구술 작전을 펼치는 액션 코미디다.

엄정화, 박성웅, 이상윤, 배정남, 이선빈 등이 출연했다.

이 감독은 2016년 개봉한 전작 ‘미스터리 스릴러 날, 보러 와요’와 정반대인 액션 코미디를 택했다. 액션 코미디 도전은 처음이다. 데뷔는 지난 2006년 영화 ‘사랑따윈 필요없어’였다. 그는 “대뷔작은 멜로였고, 다큐멘터리도 했다”며 “저는 한 장르를 파기보다 새로운 장르에 도전하는 부류”라고 말했다.

‘오케이 마담’도 액션 영화에 대한 갈증에서 시작했다. “사실 액션 영화를 하고 싶었어요. 그러던 차에 ‘오케이 마담’ 시나리오를 받았고 단순 액션이 아니라 코미디와 가족 휴머니티가 어우러져 있었죠. 오히려 고민이 된 건 코미디였어요. 국내 관객들이 좋아하는 코미디를 잘 할 수 있을까, 제겐 도전이었죠.”

이른바 ‘한국형 코미디’를 넘어, 완성도 있는 작품을 위해 고민했고 특히 배우들과 많은 대화를 나눴다.

“코미디 영화에서 흔히 대사나 상황도 중요하지만, 배우들이 무장 해제할 수 있는 판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했어요. 그 판을 만드는 게 대화였죠. 배우들이 무장 해제하고 연기를 했을 때 관객들이 진심으로 느끼는 거라고 생각해요. 제 속을 다 드러냈고, 배우들의 문도 활짝 열어 팀워크를 이루게 했죠. 그게 코미디 연출의 가장 기본이라고 느껴요.”

가내 액션이라는 점도 불거리다. 이 감독은 현실감을 위해 다양한 세트장을 운영

## 액션 코미디 첫 도전...액션영화 대한 ‘갈증’ 서 시작

### “기존 영화 답습하기보다 색다른 접근 하고 싶어요”

하는 미국 업체를 통해 ‘보잉777기’ 세트 를 배를 통해 국내에 들여왔다. 조립도 쉽지 않았다.

미술팀과 제작팀이 어렵사리 완성시켰고, 가내 모습을 생생히 구현했다. 이 비행기 세트는 영화 ‘비상선언’ 팀도 사용하고 있다.

이 감독은 액션 연출에 있어 장면 하나 하나에 스토리와 감정의 흐름을 담았다고 했다. 여성 캐릭터라는 점에서 액션의 한계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그만큼 세밀하게 구성했다.

그는 “극 중 ‘미영’ (엄정화)의 액션이 (크게) 네 번 나오는데, 시나리오 단계부터 시뮬레이션하며 시간을 철저히 계산했다”며 “사실 여성 캐릭터로서 액션의 한계에 대해 무술감독과 고민을 많이 했다. 격정과 두려움도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지치지 않는 엄정화 배우의 실신성인으로 영화가 잘 나왔다”고 말했다.

극 중 엄정화는 파매기 맛집 사장에서 비행기 납치 사건의 해결사로 변모하는 ‘미영’ 역을 맡아 통쾌한 액션을 선보인다. 박성웅은 아내밖에 모르는 남편 ‘석환’ 역으로 찡뽀 호흡을 보여준다.

“(캐스팅 전) 첫 번째로 강조한 게 연기력이었고, 두 번째가 성실함, 마지막이 액션이었죠. 사실 영화 시장에서 수적 열세로 여배우 캐스팅 풀이 넓지는 않아요. 이제 가치를 만족하는 배우로 단연 엄정화가 꼽혔죠. 초반엔 엄정화 배우가 액션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지만, 일찌감치 훈련을 시작하고 잘 이겨냈죠.”

이전 작품들에서 강렬한 연기를 선보였던 박성웅도 애교만점 캐릭터로 변신했다.

“본래 아내와 아이만 바라보는, 주머니 속에 넣어도 안 이쁠 것 같은 남성을 상상했어요. 기존 이미지로 박성웅 배우의 그림이 선뜻 그려지지 않았지만 본인이 자신했고, 결국 제대로 된 캐스팅이었죠. 그가 갖고 있는 기존 캐릭터의 앞뒤를 보여주며

‘석환’ 캐릭터가 더 풍부해졌어요.”

주연은 물론 조연과 단역, 보조출연자까지 각각의 캐릭터에도 숨을 불어넣었다. 영화의 70~80%가 비행기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출연자 모두 카메라에 직면하는 구조였고, 관객들이 집중하는 건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이 감독은 “기존의 영화와는 또 다른, 사람 냄새 풍기는 반전이 영화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그 에너지가 느껴지지 않아요. 때문에 주연만이 아니라 보조출연자까지 모두 각각의 상황과 캐릭터를 이해하고 소화하도록 끊임없이 소통하며 공을 들였어요. 그래서 모두가 자신의 역할과 존재 이유를 알고 열정적으로 해줬죠. 성실의 힘을 보여줬어요.”

최근 극 중 ‘긴장남’ 역으로 특별출연 소식을 알린 배우 김남길도 눈길을 끈다. “기획 때부터 존재했던 캐릭터였고 유명 배우가 할 거라고 상상도 못했죠. 그런데 김남길 배우가 이 역할이 재미있겠다고 먼저 얘기를 했어요. 캐릭터에 추가로 대사와 색깔을 입혔죠. 그동안 입이 간질간질 했어요.”

‘오케이 마담’ 제목은 홍콩영화 ‘에스 마담’의 오마주이자, ‘오케이’와 ‘마담’의 단합이라고 했다.

이 감독은 “저희 세대의 홍콩영화를 좋아했던 분들은 ‘에스마담’을 떠올릴 것”이라며 “요즘 세대들이 많이 쓰는 ‘오케이’와 레트로적인 ‘마담’이 합쳐졌을 때의 시너지를 거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 감독은 ‘오케이 마담’을 통해 대상을 바라보는 선입견을 뒤집고 싶다고 했다.

“반전에 반전이 끊이지 않는다”는 평이 많다. 대단한 반전이 아니어도 사람이든 상황이든, 우리가 바라보는 대상의 일면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말하고 싶었다. 액션과 코미디가 결합되고, 반전에 반전이 있는 스토리와 가족애가 담긴 영화로 관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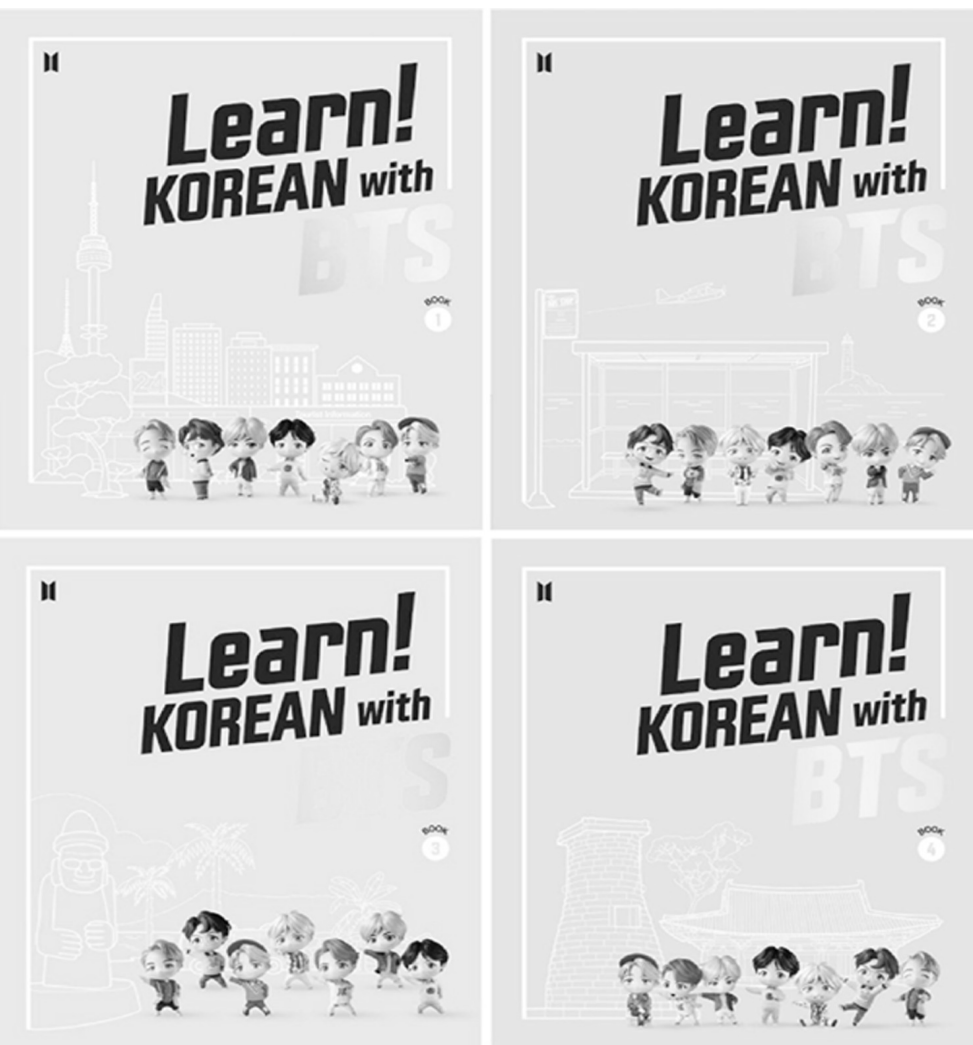


들이 즐겨줬으면 좋겠다” 새로운 장르에 계속 도전하고 싶다는 이 감독. 차기작은 액션으로 만나고 싶다고 했다. “100% 판내나는 액션 영화도 하고 싶

고 휴머니티 있는 영화도 좋아해요. 인간의 존재와 소유욕 등 본질적이지만 흥미로운 이야기를 다뤄보고 싶죠. 기존 영화를 답습하기보다 새로운 한 획을 여는 색다른 접근을 하고 싶어요.”

## 미국·프랑스·이집트 대학생, BTS 콘텐츠로 한국어 배운다

멤버들 자주 쓰는 표현 따라하며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설계



해외 대학교 학생들이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콘텐츠로 한국어를 배운다. 방탄소년단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교육 독립법인인 빅히트 에듀는 KF(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외국어대학교와 업무협약을 맺고 해외 한국어교육 진흥사업을 펼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 가을학기부터 해외 대학

에 ‘런! 코리아 워드 BTS(Learn! KOREAN with BTS)’를 활용한 KF e-스쿨 한국어 강좌가 개설된다.

‘런! 코리아 워드 BTS’는 빅히트 에듀가 제작한 한국어교육 콘텐츠다. 언어 장벽으로 인해 케이팝 음악과 콘텐츠를 즐기는 데 어려움을 겪는 글로벌 팬들이 쉽고 재미있게 한국어를 학습할 수 있도

록 돕기 위해 기획됐다. 글로벌 슈퍼스타 방탄소년단의 콘텐츠를 재구성해 멤버들이 자주 쓰는 표현을 듣고 따라하며 기초 한글과 기본 표현, 한국 문화를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설계됐다.

한국외국어대학교 허용 교수 연구팀이 개발과 감수에 참여해 오는 24일 도서 패키지 출시된다. 이에 앞서 빅히트 에듀는 지난 3월부터 매주 1회씩 같은 이름의 3분 내외의 교육 영상을 글로벌 팬 커뮤니티 플랫폼 위버스를 통해 공개해 왔다.

미국 미들베리대, 프랑스 파리고등사범대(ENS)와 에텍 비즈니스스쿨(EDHEC), 이집트 아인샤스대, 베트남 하노이국립외대과 탕롱대 등이 올 가을 학기에 ‘런! 코리아 워드 BTS’를 활용한 한국어 정규 강좌를 개설한다.

빅히트 에듀의 최영남 사업대표는 “해외 대학에서 ‘런! 코리아 워드 BTS’를 한국어 교재로 채택한다는 것은 고무적이다. 콘텐츠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한국어 학습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KF의 이근 이사장은 이번 협약에 대해 “방탄소년단을 위시한 케이팝,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 등 우리의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인정받으면서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높아졌음을 실감한다”고 전했다.

강좌의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각 해외 대학과 공유하는 역할을 하는 한국외국어대학교의 김인철 총장은 “해외의 많은 대학들이 ‘런! 코리아 워드 BTS’ 강좌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빅히트 에듀와 KF, 한국외국어대학교는 오는 12일 서울 중구 수하동의 KF 글로벌센터에서 업무협약 체결식을 갖는다. ‘한국어 펠로십’ 등의 후속 프로젝트를 모색한다.

## 악뮤, 1년만에 컴백...연말까지 3차례 신곡



남매 듀오 ‘악뮤(A.KMU)’가 1년 만에 컴백한다.

11일 YG엔터테인먼트는 “악뮤가 9월부터 연말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새로운 형식으로 신곡들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미 모든 곡 작업을 마쳤으며, 자신들만의 다양한 색채를 담아내기 위해 3편의 뮤직비디오 준비를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9월 발표한 정규 3집 ‘항해’ 이후 첫 신곡이다. ‘항해’는 타이틀곡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했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를 비롯해 ‘넌 노래’, ‘물 만난 물고기’ 등으로 호평을 들었다.

특히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했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는 발매 후 기온 월간 차트 3관왕 및 국내 최대 음원 사이트 멜론에서 당시 일간차트 1위 최장 기록을 세우는 등 음원 강자의 저력을 보였다.

YG는 “천재적인 음악 역량이 돋보이는 악뮤가 지난해 발표한 ‘항해’로 변화와 성장을 확인했다면, 올해는 이들의 진화를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다”고 전했다.

## 드라마 ‘낮과 밤’ 측 “설현 하차 없다”

드라마 ‘낮과 밤’ 측은 그룹 ‘AOA’ 멤버 겸 배우 설현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촬영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하차는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tvN 새 드라마 ‘낮과 밤’ 관계자는 11일 뉴시스에 “하차에 대해 얘기가 나온 것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AOA’ 출신 배우 권민아가 설현을 ‘방관자’라고 비난하면서 아직 방송되지도 않은 ‘낮과 밤’에 설현이 출연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권민아는 자신의 SNS를 통해 팀 활동

당시 리더인 신지민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폭로했다. 이후 논란이 되자 신지민은 팀을 탈퇴하고 연예계 활동을 중단했다.

하지만 권민아는 최근에도 SNS에 설현 등 일부 멤버와 한성호 FNC엔터테인먼트 대표를 ‘방관자’라고 비판하는 글을 계속 올려왔다.

논란이 계속되면서 일부 누리꾼들은 설현이 출연을 앞두고 있는 ‘낮과 밤’에서 설현이 하차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